

2010. 1. 4 제230호

# 세계도시동향

# 세계도시동향

2010. 1. 4 제230호

## 목 차

### 문화·디자인

1. 담벼락 그림도 문화·예술작품으로 인정 (상파울루市)

### 산업·경제

2. 여성 건설인력 훈련·취업 지원 (런던)
3. 2020년까지 자유무역항 건설 (상하이)

### 건강·복지

4.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시행 (도쿄)
5. 이민자와 외국인의 도시생활을 도와주는 유관기관 주소록 발간 (베를린)
6. 공공부문 신입사원 채용 시 이민자 출신비율 확대 (베를린)
7. 지하철 TV 공익광고로 '차별 반대' 캠페인 전개 (베를린)
8. 금연지역 확대 지정 (상하이)

### 방재·안전

9. 역전(驛前)에서 대규모 재해 대비 모의훈련 실시 (도쿄)

## 목 차

### 도시환경

10. 2015년까지 도시 전역에 2만여 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런던)
11. 독자적인 동식물 보호전략 마련 추진 (베를린)
12. 처음으로 대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발간 (뉴욕)
13.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잉여전력 판매가격 상향 조정 추진 (미국 메사추세츠州)
14. '연기 제한법' 도입 검토 (상파울루市)
15. 전자쓰레기 재활용품 전시회 개최 (쿠리치바市)
16. 실내경기장 지붕에 초대형 태양열 집적판 설치 (베를린)

### 도시교통

17. '511 교통정보시스템'으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뉴욕)
18. 업무용 건물에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 의무화 (뉴욕)
19. 걷기·도보여행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외곽지역으로 확대 운영 (런던)
20. 동서로 관통하는 관광용 자전거도로 건설 (베를린)

## 문화 · 디자인

### 1. 담벼락 그림도 문화·예술작품으로 인정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에서는 벽이나 담벼락에 그린 그림을 문화·예술작품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 2009년 12월 20일 市는 마스피 미술관에서 담벼락 그림 전시회를 개최함.

- 이번 전시회는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란 주제로 열렸으며, 담벼락 그림이 정식으로 미술관에 진입한 첫 행사임. 6명의 담벼락 그림 화가가 700리터의 라텍스와 600개의 스프레이를 사용해 미술관 지하 1500제곱미터의 벽과 바닥에 그림을 그림.

· ‘밖’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시 담벼락을 장식한 그림을 가리키며 ‘안’은 그림과 사진, 비디오 등 기타 보조물을 가리킴. 벽화를 그리는 화가는 ‘안’에 해당되는 보조물을 이용해 그림을 완성함.

· 마스피 미술관장은 이번 전시회의 의미가 도시 내 담벼락 그림을 일종의 문화·예술작품으로 인정하는 데 있다고 밝힘.

([www.google.com/hostednews/afp/article/ALeqM5hYAt4r9\\_tQane-y0lA3zSwzUoKHw](http://www.google.com/hostednews/afp/article/ALeqM5hYAt4r9_tQane-y0lA3zSwzUoKHw))

## 산업 · 경제

### 2. 여성 건설인력 훈련·취업 지원 (런던)

○ 올림픽공원 건설 사업에 여성 기술인력을 참여시키는, 런던개발청의 ‘여성 건설인력 확충사업’(Women into Construction)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음. 런던개발청은 건축·건설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여성 기술인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여성 인력을 별도로 훈련하여 건설현장에 최근 111명을 투입함.

- 여성 회소산업군에 대한 인력개발·취업지원 사업은 영국 왕실의 공주가 수여하는 여성 과학·건설·기술 파트너십상을 받음.
  - 현재 올림픽공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여성은 전체 인력의 6%인 270여 명임. 이는 영국 건설업계 여성인력 비율인 2%보다 높은 수치임.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516](http://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516))

### 3. 2020년까지 자유무역항 건설 (상하이)

○ 상하이市는 2020년까지 홍콩과 같은 자유무역항(Free Port)을 건설할 계획임. 상하이가 자유무역항이 되면 수출입 시 부과되는 관세 등이 면제되고 보세(保稅) 구역 내에서 상품 포장, 가공, 판매 등이 자유로워짐.

- 자유무역항은 동북쪽 가오차오(高橋)항과 남동쪽의 양산(洋山)항을 잇는 100킬로미터의 해안선과 그 배후지(3400km<sup>2</sup>)에 건설하는데 양산항, 가오차오, 푸둥공항 보세구를 설치해 자유무역항으로 개발함.
- 구체적인 계획안에 따르면, 1단계로 2009~2010년 자유무역항 건설계획안을 확정하고 2단계로 2011~2015년 양산항 보세구를 모델로 북와이탄, 루자주이, 린강신청 등으로 확대하고 3단계로 2016~2020년 관련 법규와 제도를 완비해 명실상부한 자유무역항을 건설함.
  - 市는 이 같은 계획의 일부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양산항 보세구에서는 2009년 5월부터 세금감면 조치를 취해 약 4000만 위안(약 68억 원)에 달하는 영업세를 감면함.

(<http://finance.ifeng.com/news/20091215/1581286.shtml>)

### 4.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시행 (도쿄)

○ 도쿄都是 고령자가 정든 지역에서 요양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계속 살 수 있도록 ‘의료·요양보호 제휴형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공모함.

-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에서는 코디네이터가 주야로 상주해 안부 수시 확인, 응급 시 대응, 일상생활 상담, 건강관리, 식사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공모로 선정한 2개 사업체는 18~22제곱미터형 21세대, 26~27제곱미터형 65세대의 독신 임대주택을 각각 건설하고 같은 단지 내에 의료시설과 요양보호시설을 운영함. 입주비용은 월 16만 엔(약 202만 원)에서 21만 엔(약 265만 원)으로 선택 옵션에 따라 다름.

-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생활 지원 서비스는 기존의 의료·요양보호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임.

· 생활 지원 서비스는 입주자와 계약을 맺어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함.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택 사업자와 의료·요양 서비스 사업자가 제대로 지침을 준수하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2/20jca5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2/20jca500.htm))

### >>> 전문가 검토의견

- 개호(介護) 제휴형 고령자 임대주택은 노인이 개별 주택에 거주하면서 식사, 건강관리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지원받는 주택으로 기존의 집단거주 시설인 노인양로시설을 발전시킨 개념임.

· 서구에서는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증가로 지역사회 케어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개호 제휴형 고령자 임대주택은 노인 전용주택과 케어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노인주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격이 비싼 고급형 위주로 공급되고 있음. 노인복지주택은 시설 특성상 의료 시설과의 연계, 생활서비스 제공, 아파트 관리비 부담 등으로 실제 비용부담이 매우 커 수요가 제한적임.
- 노인복지주택은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는데, 실제 거주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음. 따라서 서울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민·중산층 고령자를 위해 더욱 저렴한 실비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장영희 도시기반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yhjang@sdi.re.kr)

## 한 줄 뉴스

### ● 일본

- 편의점 '패밀리마트'가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점포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 추진
- '미츠이부동산'과 '파나소닉'은 공동으로 사무실의 형광등 사용을 반으로 줄이는 조명기구 개발

### ● 중국

-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 5. 이민자와 외국인의 도시생활을 도와주는 유관기관 주소록 발간 (베를린)

○ 이민자와 외국인은 도시생활에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만 어디에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이에 베를린市는 이러한 이민자와 외국인을 위해 ‘통합의 도시를 위한 유관기관 주소록’을 발간함.

- 이 주소록은 300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연방정부 기관, 베를린 행정기관, 사회복지협회, 사회정책기관, 경제정책기관의 이민자·외국인 담당부서 현황을 수록함.

· 외국인이 자주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공·민간기관과 상담소 현황도 주제별(의료 및 연금, 법률, 소비자보호, 채무상담, 결혼 및 가족관계, 교육, 노동, 차별 등)로 정리해 소개함.

- 이민자·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100여 개의 문화·어학·학술기관 목록을 수록하고 연령별(청소년, 성인), 그룹별(망명, 이민), 성별(여성, 동성애자)로 이용할 수 있는 상담소 현황과 종교단체, 스포츠협회, 국가별 대사관·영사관, 긴급전화번호 등을 정리해 소개함.

- 기관·조직마다 어떤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지도 표기함. 이 주소록은 市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2/10/149071/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2/10/149071/index.html))

## 6. 공공부문 신입사원 채용 시 이민자 출신비율 확대 (베를린)

○ 베를린市는 2013년까지 市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시 이민자 출신비율을 1/4로 확대할 계획임. 市는 2009년 12월 16일 약 40명의 공공기관·공기업 대표가 모인 회의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인구비율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 市는 2006년부터 이민자 출신 졸업생의 채용을 확대하자는 캠페인을 벌임.



2008년에 베를린 소재 연방기관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2009년에는 市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공기업이 동참함.

- 이 캠페인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이민자 출신 채용비율이 2006년 8%에서 2009년 14%로 약 2배 정도 높아짐.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2/17/149806/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2/17/149806/index.html))

## 7. 지하철 TV 공익광고로 ‘차별 반대’ 캠페인 전개 (베를린)

○ 베를린市는 2009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와 함께 ‘차별을 민감하게 생각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 市는 지하철 전동차 내 TV로 ‘차별의 다양한 모습’이란 제목의 공익광고를 상영함. 공익광고에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차별에 반대하고 이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함. 특히 작은 차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지각하고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차별 상담소의 연락처도 안내하고 있음.

- “이 사람은 일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아”, “이 사람은 동성애자라 아파트를 세 주기 싫어”, “이 사람은 장애가 있어 식당에서 식사하는 건 적합하지 않아”, “이 사람은 종교가 특이해서 직업훈련을 하기에 부적합해”, “이 사람은 흑인이라 이 지역에 살기 부적합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차별의식과 양태에 문제를 제기함.

- 市의 반차별 정책은 극우주의, 인종주의, 여성차별주의에 대한 반대운동과 성적 다양성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 유도·지원사업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진행되고 있음.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2/09/149042/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2/09/149042/index.html))

## 8. 금연지역 확대 지정 (상하이)

○ 상하이市는 2010년 3월부터 미술관·영화관 등 공공장소,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영업장, 백화점·슈퍼마켓 등 상업시설, 의료기관, 대중교통 정류장·매표소·대합실, 학교, 오락실 등 13개 유형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함.

- 이에 따라 초·중·고교, 대학 기숙사, 엘리베이터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구역도 금연지역에 포함됨. 음식점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좌석이 75개 이상인 경우 지정된 흡연장소 외의 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됨.

·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200위안(약 8600~3만 4000원)의 벌금이 부과됨.

([http://www3.xinhuanet.com/chinanews/2009-12/11/content\\_18470022.htm](http://www3.xinhuanet.com/chinanews/2009-12/11/content_18470022.htm))

## 방재 · 안전

### 9. 역전(驛前)에서 대규모 재해 대비 모의훈련 실시 (도쿄)

○ 지진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역 주변을 중심으로 대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큼. 특히 교통기관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역 주변은 많은 체류자로 혼란이 우려되지만 공공기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도쿄都는 역 앞에서 대규모 재해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함.

- 都는 2007년 신주쿠驛과 기타센주驛, 2008년 이케부쿠로驛과 시나가와驛, 2009년 시부야驛에서 대규모 재해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으며 2010년 1월에는 우에노驛 주변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임. 모의훈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역에서 발이 묶인 승객을 인근 대형점포나 공원 등 안전한 장소로 유도해 대피시키고, 승객이나 지역 주민에게 재해정보를 제공할 거점을 공원에 설치함.
  - 제휴 의료기관에 응급 의료소를 설치하고 버스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함. 장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승객이나 지역 주민을 임시 대피시설(대학교 체육관 등)로 유도하고 긴급상황이 종료되면 귀가 조치함.
- 2010년에는 언어 문제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한 방재훈련도 함께 실시할 예정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2/20jc44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2/20jc4400.htm))

## 한 줄 뉴스

### ● 베를린

- 2010년부터 디젤 미립자 필터를 장착하지 않은 노후차량은 '환경구역' 내 통행 금지

### ● 도쿄

- 도립 직업능력개발센터에 50세 이상의 고령자 대상 '정원 시공·관리' 강좌 개설
- 화력발전소에 나무쓰레기(임목폐기물)를 활용한 발전설비 건설 추진

### 10. 2015년까지 도시 전역에 2만여 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런던)

○ 런던市는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더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책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충방안을 발표함. 2015년까지 市 전역을 대상으로 1마일(약 1.6킬로미터) 반경 안에 충전소를 최소 1개 설치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市는 그동안 전기자동차 이용 확산을 위해 유관산업 간 연계·협력 사업을 꾸준히 펼쳐옴. 이번 충전소 확충계획은 기존 대책에서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런던을 유럽의 전기자동차 수도로 만들겠다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서려는 노력의 일환임.

· 이 계획이 완료되면 충전소가 사업장에 2만 2500개, 거리에 500개, 공공 주차장에 2000개가 건설됨. 충전소 설치와 전기자동차 조달 등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6000만 파운드(약 1110억 원)이며, 市는 자체 예산으로 1/3 가량 충당한 뒤 나머지 재원은 중앙정부, 민간기업 등에서 확보할 계획임.

-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은 개별 구청 단위로 시행되는데, 市는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를 위해 2010년부터 구청 데이터베이스를 일원화하여 전기자동차 이용 회원제와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함.

- 市는 2015년까지 市와 市 산하기관이 이용할 전기차량 1000대에 대한 수요와 재정 충원 등 조달계획을 마련 중이며, 재정지원 문제를 중앙정부와 협의한 뒤 2010년 초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503](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503))

([www.london.gov.uk/electricvehicles](http://www.london.gov.uk/electricvehicles))

##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시는 2009년 5월 ‘전기자동차 보급계획’(An Electric Vehicle Delivery Plan for London)을 마련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비전을 제시한 바 있음.
- 런던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계획은 이 비전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충전시설의 보급 촉진을 위해 시는 향후 신규 개발 시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서울시도 선도적으로 그린카 보급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이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관용차량을 우선적으로 그린카로 전환하고 대중교통 부문에도 그린카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충할 경우 런던시의 Newride 홈페이지(www.newride.org.uk)와 같이 전기자동차 종합 포털을 구축하여 충전소 위치와 전기자동차 구입 안내 등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고준호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jko@sdi.re.kr)

## 11. 독자적인 동식물 보호전략 마련 추진 (베를린)

- 베를린시는 시청사에서 ‘베를린과 카운트다운 2010’이란 제목으로 2010년 1월 5일까지 베를린 동식물 전시회를 열. 동식물 2만 종이 서식하고 있는 베를린은 이미 1992년 중부 유럽에서 가장 풍부한 생태 다양성이 있는 도시로 평가 받음.
  
- 그동안 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세운 전략의 기초 위에서 동식물의 다양성을 보호해왔지만 2011년까지 독자적인 동식물 보호전략을 마련할 계획임. 이번 전시회는 이의 일환임.

- 市는 전시회에서 다양한 동물의 서식처와 생활상, 식물 군락지와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 도시에서 생태 다양성은 어떤 의미가 있고, 동식물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 동식물 보호를 위해 국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베를린의 동식물 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시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2/10/149150/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2/10/149150/index.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 베를린은 도시의 생물상을 비롯하여 도시 서식지·군락지의 생태적 특성 등 도시생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로, 도시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태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도시공간에 사는 동식물 전시회는 도시생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베를린市에서 추진하는 도시 동식물 보호정책에 시민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행사로 평가됨.
- 서울시에서도 멸종위기 생물 전시회, 곤충 전시회 등 다양한 형태의 생태 관련 특별전시회를 열고 박물관이나 각종 생태 관련 전시관 등에서 상설전시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 차원의 도시 생물상 전시는 아직 하고 있지 않고 도시 생물상에 대한 인지도도 높지 않은 실정임.
-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생물 다양성은 자연공간보다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획일화되고 고밀 개발된 서울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은 부족한 편임.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 생물상을 전시하고 도시 생물상 보호·증진전략을 마련하는 일은 생태적인 도시 관리의 기초가 될 것임.

/송인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injusong@sdi.re.kr)

## 12. 처음으로 대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발간 (뉴욕)

- 뉴욕市는 2009년 12월 15일 처음으로 도시 대기질(Street Level) 측정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공표함. 대기질 측정 결과, 자동차 배기가스와 건물보일러

시스템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뉴욕에서 맨해튼 지역이 대기 오염도가 가장 심한 곳으로 조사됨.

- 市는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를 계기로 장기 도시계획에 대기질 측정결과와 향후 과제를 포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하기로 함.
  - 市는 그동안 대기질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건강에 악영향을 줄 만큼 좋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다양한 대기질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www.nyc.gov/html/om/pdf/2009/pr\\_538\\_nyccas\\_report.pdf](http://www.nyc.gov/html/om/pdf/2009/pr_538_nyccas_report.pdf))

### 13.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잉여전력 판매가격 상향 조정 추진 (미국 메사추세츠州)

- 미국 메사추세츠州는 주택에서 태양광 집열판이나 풍력발전 터빈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중 실제 소비량을 제외한 잉여전력을 더 좋은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그린커뮤니티 법안’을 마련함.
- 기존에는 태양전지판이나 풍력발전을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을 60 킬로와트로 제한하고 잉여전력을 파는 경우 도매가로 판매하도록 했으나. 새 법안에서는 2메가와트까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가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www.planetizen.com/node/41903](http://www.planetizen.com/node/41903))

([www.good.is/post/home-energy-generation-gets-better-in-massachusetts](http://www.good.is/post/home-energy-generation-gets-better-in-massachusetts))

#### 14. '연기 제한법' 도입 검토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피자판매점, 숯불구이집, 제과점, 식당 등에서 나오는 연기를 규제하는 법률의 도입을 검토 중임. 市는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연기가 시민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판단해 연기 배출장소를 조사하고 있음.

- 상파울루 시내에는 약 6000개의 피자판매점이 있음. 치즈피자 한 판을 굽는데 약 1킬로그램의 통나무가 태워지는데, 이 때 배출되는 연기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고 겨울에는 안개까지 발생시킴. 연기 때문에 시민의 민원 제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임.

· 市는 향후 화로 사용법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피자판매점 측에서는 연기 배출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어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함.

([www.ipoom.com/noticias/bemestar/66928/prefeitura+vai+fiscalizar+poluicao+de+fornos+a+lenha+em+sp.html](http://www.ipoom.com/noticias/bemestar/66928/prefeitura+vai+fiscalizar+poluicao+de+fornos+a+lenha+em+sp.html))

#### 15. 전자쓰레기 재활용품 전시회 개최 (쿠리치바市)

○ 브라질 쿠리치바市는 컴퓨터 모니터·키보드·마우스`, CD, 배터리 등 폐컴퓨터나 전자부품에서 나오는 전자쓰레기를 재활용해 만든 제품 전시회를 열. 수공예 예술가 2명과 학생 40여 명이 전자쓰레기를 이용해 크리스마스 트리 등을 만들어 전시함.

- 그동안 전자쓰레기의 유해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온 市는 이러한 전시회를 전자쓰레기 재활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계획임.

· 전시회를 방문한 학생들은 전자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도 함. 예를 들어 한 학생은 사용하지 않는 키보드, CD,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로봇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힘.

([www.curitiba.pr.gov.br/publico/noticia.aspx?codigo=18241&Lixo-eletr%c3%b4nico](http://www.curitiba.pr.gov.br/publico/noticia.aspx?codigo=18241&Lixo-eletr%c3%b4nico))



-transformado-em-1rvore-de-Natal-e-prespio)

## 16. 실내경기장 지붕에 초대형 태양열 집적판 설치 (베를린)

○ 1996년 개관한 베를린의 가장 큰 실내경기장의 하나인 ‘막스 스멜링 할레’의 지붕에 베를린에서 제일 큰 태양열 집적판이 설치됨. 8000제곱미터 크기의 지붕에 1000개의 솔라 모듈이 설치된 데 이어 2010년 초까지 1300여 개의 솔라 모듈이 설치될 예정임.

- 솔라 모듈을 모두 설치하면 시간당 210메가와트의 친환경적인 전력을 생산하게 됨. 이는 100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임.

- 시행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건물 소유주가 자신의 건물 지붕에 태양열 집적판을 설치할 경우 에너지 생산비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 절약비용 등을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태양열 에너지 계산기’ 프로그램을 올려 놓음.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2/09/149027/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2/09/149027/index.html))

### 한 줄 뉴스

#### ● 브라질 카탄두바市

-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자전거 퍼레이드를 펼치는 행사를 2009년 12월에 열고 자녀 선물을 참가자에게 증정

#### ● 브라질 쿠리치마市

- 2009년 연말을 맞아 약 5만 명의 빈곤아동에게 장난감 전달

## 도 시 교 통

### 17. '511 교통정보시스템'으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뉴욕)

○ 뉴욕시는 온라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와 자가용 운전자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함. 교통정보는 인터넷 사이트([www.511ny.org](http://www.511ny.org))나 전화(511번)를 이용해 얻을 수 있음.

- 실시간 교통현황, 대중교통 환승정보, 카풀정보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사이트에도 링크되어 있어 교통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

([www.511ny.org](http://www.511ny.org))

### 18. 업무용 건물에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 의무화 (뉴욕)

○ 뉴욕시는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업무용 건물 내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전거 통행을 늘리기 위한 전략계획안도 마련함.

- 2009년 자전거 이용률은 2008년 대비 26% 증가함. 시는 2012년 자전거 이용률 목표치를 2007년의 2배, 2017년 목표치를 2007년의 3배로 정함.

([www.nyc.gov/html/dot/html/pr2009/pr09\\_052.shtml](http://www.nyc.gov/html/dot/html/pr2009/pr09_052.shtml))

### 19. 걷기·도보여행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외곽지역으로 확대 운영 (런던)

○ 런던교통공사가 개발한 걷기·도보여행 정보 제공 프로그램인 '걷기 쉬운 런던'(Legible London) 사업을 리치몬드 등 외곽지역 3곳으로 확대 운영함.

- 이 사업은 2007년 11월 도심 쇼핑가인 본드 스트리트에서 처음 선보임. 해당 지역을 쉽고 빠르게 걸어서 이동하도록 인근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인도 등에 지도와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미관상 좋지 않은 표지판을 깔끔하고 통

일성 있게 디자인해 시민의 호응을 얻음.

- 市는 짧은 거리를 걸어 다니는 시민이 늘게 되면 인구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市는 도심뿐 아니라 시민이 자주 찾는 외곽지역에도 걷기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실시해 런던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도록 유도함.
- 이 사업에는 市를 비롯해 런던교통공사와 자치구청, 지역 기업 등이 공동 참여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3837.aspx](http://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3837.aspx))

## 20. 동서로 관통하는 관광용 자전거도로 건설 (베를린)

○ 베를린에 ‘유럽路 R1’이라고 이름 붙여진 관광용 자전거도로가 건설됨. 포츠담 市와 연결되어 있는 이 자전거도로는 베를린 동서의 주요 휴양지와 관광지를 연결해 시민과 관광객이 자전거로 편하고 빠르게 베를린의 주요 명소를 둘러 볼 수 있도록 함.

- 총연장 68킬로미터인 이 자전거도로는 市 서쪽에 있는 하벨 호숫가에서 시작해 도심부의 브란덴부르크 문을 지나 슈프레 강을 따라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 동쪽 외곽의 뮈겔 호수를 돌고 에르크너 市로 넘어감.

- 베를린에는 도심부인 솔로스 광장에서 외곽으로 뻗는 12개의 자전거도로망과 베를린장벽 자전거도로망 등 3개의 관광용 자전거도로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관광용 도로망이 하나 더 추가된 것임. 현재 2개의 시외구간 자전거도로망도 건설 중임.

- 市가 자전거 통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자전거교통 전략으로 자전거도로 건설 외에 자전거 주차시설 개선, 공공 교통수단과의 원활한 연계, 교통안전 확보 등이 있음.

- 특히 역점을 두는 분야는 ① 도시 전 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

- ② 자전거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일되고 체계화된 교통표지판 설치, ③ 자전거 통행 안전성 확보 등임.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912/nachricht3726.html](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912/nachricht3726.html))

## 한 줄 뉴스

### ● 뉴욕

- 아파트·임대주택 현황 등 2009년 주택시장 동향을 소개한 책자와 CD를 제작·판매
- 저소득층이 주택을 쉽게 임차하도록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별 가정에 주택보조금 지급
- 다양한 市 정책자료와 홍보물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시티 스토어' 운영